

전남 동부권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내일부터 사흘간 동천 일원

‘2012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이 25일부터 27일까지 동천 일원을 주무대로 드라마촬영장, 조례호수공원 등에서 열린다.

‘생명의 땅 순천, 자연과 동화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타도시와 차별화된 도심권 축제로 도시성장을 가져오고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홍보 볼 요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 열린 ‘국제 정원박람회’에 초점을 맞춰 꽃과 정원,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향유 계층을 확대해 시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또 체험·전시·수상·야간 프로그램에 대폭 강화해 참여 계층 다양화를 통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테마형 축제로 추진된다.



마형 축제로 추진된다.

25일에는 태진아·남진·송대관·장사익 등 유명 가수 축하공연으로 페스티벌을 뜨겁게 달굴 계획이다.

26일에는 정원박람회 지역문화에

소울 프로그램 선정팀들의 공연과 각설이 공연·인디밴드 공연·비 보이(B-boy) 공연·퓨전 소리나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7일에는 지역단체 공연과 대북 공연, 국악인

오정해씨의 공연이 마련돼 있다. 행사장에는 수상정원과 장풍어 이야기 터널, 감각의 정원, 철쭉과 생태공예, 정원박람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한평 정원 전시 등 기획 전시 행사가 펼쳐진다.

또 벽화그리기 체험,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 수상 레포츠 체험, 열기구 체험 등 체험행사와 한평 정원 견학대회, S팝 청소년 스타 등 경연대회도 마련돼 있다.

서브 무대인 드라마 촬영장과 조례호수공원에서는 복고 페어이드로 구성된 ‘퍼레이드 6080 테마거리’ 행사와 영화박물관 소 담구기 체험, 한평 영화제 등이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황토밭 햇감자 맛보실라유”

2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회천면 주민들이 23일 황토밭에서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보성군은 올해 930여 농가가 1000ha에서 감자 2만5000t을 수확한다. <보성군 제공>

국민권익위 내일 곡성서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5일 곡성 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인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이동 신문고’는 누구든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특히 민원상담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부처별 전문가와 권익위

조사관들에 의해 주택건축, 복지노동, 농림환경, 산업, 도로교통, 재정세무, 행정문화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중 현장에서 처리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고충 민원은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습지생태 관광대회’ ‘해양보호구역 전국대회’ 순천시 대상 수상

순천시가 최근 신안군 증도 갯벌생태 전시관 일대에서 열린 ‘습지생태 관광대회’와 ‘해양보호구역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습지생태 관광대회’는 습지보호지역 지자체나 지역주민 등이 팀을 구성해 특색 있는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대회로 일반인 참가자와 전문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매겼다.

또 ‘해양보호 관리구역 경연대회’는 전국 해양 경관이 우수한 지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참석해 해양보호 구역을 위해 지난 1년간 관리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이다.

순천시는 우리나라 대표적 연안습지인 순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가치를 위해 노력한 관리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순천만 자연 해설사들이 발표를 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경제자유구역 개발저해 불합리 제도 개선해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최근 부산 해운대 BEXCO 컨벤션 홀에서 제 8차 협의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주진호 행정개발 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선순분양 가능 공공 시행자에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시켜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전용 임대

주택 계약상대자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법인을 추가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개청일자 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협의회를 갖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개최지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결정됐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곡성 세계 장미축제’ 내일부터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군은 장미 개화 절정기에 맞춰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1004 장미원’에서 ‘곡성 세계 장미축제’를 개최한다.

장미축제 기간동안 꽃다발 모양의 스탠다드형 장미와 나무 모양의 교목형 장미, 키가 작은 미니 장미, 넝쿨장미 등 형형색색의 유럽산 장미 향기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향기, 사랑, 그리고 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크게 ▲세계 명품 장미와 만남(5월 25~28일) ▲500만송이 장미향기와 만남(6월 2~3일) ▲코미작자리 환경 한마당(6월 9~10일) ▲농산물 큰잔치(6월 16~17일)로 나뉘어 열린다.

‘세계 명품장미와 만남’은 현악 4중

“500만송이 장미 향기에 취해보세요”



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장미빛 사랑 커플 음악회, 세계명품장미 음악회, 장미꽃 신비의 미술쇼 등이 펼쳐진다.

‘500만송이 장미향기와 만남’은 지

리온실에 ‘세계 명품 장미 전시관’을 꾸며 운영하고, 테마별로 연인들이 사랑의 추억을 남기는 ‘장미사랑 스토리텔링 거리’를 조성한다.

장미 관련 시와 격언·노랫말 전시관으로 장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미 송 콘서트’와 ‘장미 샷 추억 만들기’, 장미 압화·염색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한편 곡성군은 총사업비 53억을 투입해 섬진강 기차마을에 부지 4만㎡에 독일·영국·프랑스 등지에서 수입한 1004개 품종 3만8000여본의 장미를 식재한 ‘1004 장미원’을 지난 2010년 6월 개관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역예술단체의 오프닝 공연을 비롯해 관광객 노래자랑, 장미향기 퓨전 음악회, 관광객 어린이·청소년·가족 노래방 등이 진행된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장미공원 유

전 북

서울에 ‘전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개설

내달부터 ‘수도권 귀농학교’

전북도가 ‘인생 2모작’을 꿈꾸는 수도권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종합상담과 홍보활동을 펼치는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서울에 있는 전북 투자유치사무소내에 ‘전북도 귀농·귀촌 지원 서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센터는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증가 추세에 맞춰 이들에게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도의 우수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도는 서울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귀농시책 홍보를 비롯해 농지 구입정보, 빈집정보, 전문 농업기술 전수, 희망지역 통행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알선, 교육, 홍보 등 종합적인 나침반 구실을 하

게 된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희망자를 위한 상담전화(1577-3742)와 인터넷 사이트(jbreturn.com)도 개설해 편리하게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다음달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해 수도권 거주 귀농·귀촌 희망자의 도내 유치를 적극으로 펼칠 계획이다.

수도권 거주 희망자(120명)를 대상으로 한 귀농학교는 ‘전원 생활형’과 ‘귀농 창업형’으로 각각 나뉘어 이론 교육·현장교육을 병행한다.

김안주 지사는 개소식에서 “앞으로 더 많은 희망자가 전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계획, 민관 협력 체제 구축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대규모 해삼 양식단지 집중 육성

전북도, 군산 옥도·부안 위도·고창 심원 예비후보지 추천

전북도가 군산시 연도 등 도내 연안에 신성장 수출전략 품종으로 대규모 해삼 양식단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양식사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를 위해 군산시 옥도면 연도·개야도·심이동파도,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쌍여도 해역을 대단위 ‘해삼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 후보지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삼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한 10대 전략 양식품종이며, 중국이 주요 소비국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수산부는 ‘수출전략 양식업(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해 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전남대에서 지난 4월에 착수 보고회를 가진 이후 각 지자체로부터 예비 후보지를 추천받아 다음 달중에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삼 양식업(양식단지)’은 2020년 목표로 ▲시범(2013~2015) ▲확산(2016~2018) ▲정착(2019~2020) 3단계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13~2015년(3년간) 양식시설 R&D 및 시범사업 예산 확보와 품종별 후보지 2개소에 대한 본

격사업을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 업계, 연구소 등과 협력사업으로 실시한다.

전북도는 ▲군산시 옥도면 250ha(연도 100ha·개야도 100ha·심이동파도 50ha) ▲부안군 위도면 진리 100ha·왕등도 100ha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50ha 등 총 500ha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성과 지리적·환경적·경제적 여건 등 당위성을 설명해 도내 연안이 전국 제일의 해삼 양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단 신

전주 정보 영상진흥원 교육생 모집

전주 정보 영상진흥원은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 ‘디지털 영상편집 전문가 양성과정’(6월 20~8월 30일)과 ‘임베디드 LED 시스템 응용 전문가과정’(6월 25~10월 19일)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영상편집 전문가 양성과정’은 전북지역 디지털 영상분

야 및 후반기제 전문 커리큘럼을 구성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임베디드 LED 시스템 응용 전문가과정’은 전북지역 IT관련학과 졸업생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의(063-281-4122)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26일 음악회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관장 정준기)은 26일 오후 4시 박물관 로비에서 ‘근대문화와 함께하는 박물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플루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세대를 초월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주제가와 춤곡 등을

해설을 곁들여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원도심 활성화와 군산 근대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시관을 활용한 시대극인 ‘1930년 시간여행’을 매주 상설공연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 죽산마을 ‘전기재해 없는 마을’ 현판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이정방)는 지난 22일 익산시 낭산면 죽산마을을 ‘전기재해 없는 마을’(Green town)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우선 정밀안전 점검과 가구별 소오자재를 파악한 뒤 전문가를 투입

해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관내 마을 한 곳씩을 ‘전기재해 없는 마을’로 정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캠페인을 벌여왔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국립 민속국악원 26일 어린이 창극 공연

국립 민속국악원(원장 정상열)은 가정의 달을 맞아 26일 오후 4시 예원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열린 창극 ‘깨비깨비 도깨비’ 공연을 한다.

‘깨비깨비 도깨비’는 짧은 소리꾼들이 꾸며내는 현대판 창극이

다. 창작소리, 전래동요, 탈춤, 꼭두각시놀음 등이 아름다운 국악 실내악의 선율과 함께 어우러진다. 공연 종료 후 어린이 관객에게 색연필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063-620-2328)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전북 수박맛 기대하세요”

도 농기원, 당도 향상 기술 개발 성공

전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 수박시험장이 수박 당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수박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수박농가들은 6월 상순부터 6월 하순까지 고온기에 집중 출하하고 있는데 이때 비닐하우스 내부가 고온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도가 저하돼 수박품질이 떨어뜨린다.

수박시험장은 ‘최고품질 과제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박당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기술핵심은 수확 15일 전에 물

공급을 중단해 잎에 영양분의 흡수에 의한 불필요한 과실 비대를 억제하고, 생육 후기인 착과 35일 이후에는 과육을 단단하게 하고 질소흡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갈슘 화합물이나 PK(인산칼리)를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엽면시비하는 것이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당도는 수박의 품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당도를 1브릭스(Brix) 더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웃으세요”

찾아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 청림동마리 ‘춘향골 푸르미’ 회원과 112타격대 대원들은 지난 22일 남원시 갈치동 ‘행복의 집’을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